



# 보도자료

책임자 김해식 실장(금융제도연구실, 3775-9041)  
 작성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(3775-9033)  
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보도 2023. 8. 30(수) 16:00부터  
 매수 총 4매

## 보험연구원 · 한국연금학회, 「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경쟁력 제고방안」 공동세미나 개최

- 1주제 : “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(가칭)민간연금시장협의회 구성을 통한 주기적 시장 평가 및 정책건의 필요”
- 2주제 : “고령자 보장 강화와 보험회사의 수익성 확보 필요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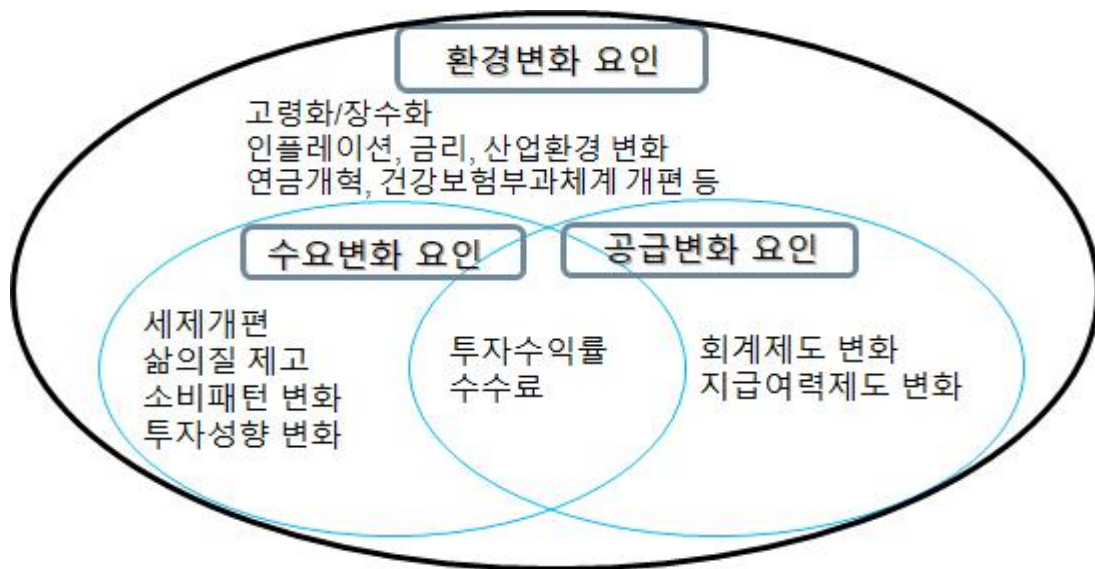
○ 보험연구원과 한국연금학회는 개인연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논의하기 위해 8월 30일(수) 오후 2시 『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경쟁력 제고방안』 공동세미나를 개최함

### - 프로그램 -

시 간	내 용
14:00 ~ 14:15	(개회사) 안철경 (보험연구원 원장) (축 사) 김원섭 (한국연금학회 회장)
14:15 ~ 15:10	(발표 1) 연금시장 평가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/ 강성호 (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) (발표 2) 연금보험상품 경쟁력 제고방안 / 장 철 (한양대학교 교수)
15:10 ~ 15:30	Break Time
15:30 ~ 17:00	(좌 장) : 오영수 (김앤장 고문) (개별토론) : 유제상 (생명보험협회 부장), 이경희 (상명대학교 교수), 장연주 (충북대학교 교수), 최은실 (금융감독원 연금감독팀장)

- (주제발표 1)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‘연금시장 평가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’이라는 주제로 현행 개인연금시장의 시장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시장을 통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
- (연금시장 환경) 인구/사회구조, 거시경제, 유관 제도의 변화 등은 개인연금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
  - 노인인구 증가, 장수화는 추가적 노후준비를 요구하고,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고령시장의 소비성향 변화 등 적정노후생활비 증가가 예상되어 연금상품 등 노후 준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 - 그러나 인플레이션, 금리변동, 산업환경 변화 등 거시경제환경과 연금개혁,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, 회계기준 변화 등 유관제도의 변화는 공급측 유인을 억제할 것으로 평가됨

<연금시장 환경변화 및 수요공급 변화 요인>



- (개인연금시장 평가) 연금시장의 성과는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의해 결정되며,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개인연금시장은 시장실패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
  - 노후준비가 더욱 요구되지만, 현실적으로 수요는 증가와 위축의 가능성이 공존하고 공급은 환경 및 제도적 요인 모두에 의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

### <연금시장 평가>

구분	설명
시장 실패	· 노후준비의 강화에 따른 <b>높은 연금수요의 필요성에도</b>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<b>수요와 공급은 억제</b> 되어 나타남
	· 이로 인해 소비자후생 및 생산자잉여(이윤)가 낮아졌고, <b>시장원리에 의한 적정 수요와 공급 상태에 도달하지 못함</b>
실패 원인	· 고령화/장수화, 인플레이 등 환경 요소는 수급변화를 공히 초래하는 요인이 됨
	· 수요변화 요인으로 <b>세제, 삶의 질 제고(소비성향)변수는 '수요증가'</b> 유인으로 작용하나, <b>투자성향변화, 낮은 투자수익률, 수수료부담</b> 등은 수요에 불확실성을 높여 <b>'수요를 위축'</b> 시킴
	· 공급변화 요인으로 <b>회계제도/지급여력제도</b> 변화와 과거 판매상품에 대한 역마진 우려, 수수료 체계 변화는 <b>'공급을 위축'</b> 시킴

• (개인연금 활성화 방안) 환경 및 제도적 변화 요인을 고려하고 수요건인 및 공급 활성화 정책을 통해 개인연금시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

- 개인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필수품으로 인식되도록 하고, 잠재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
- 또한 (가칭) 연금환급세제, 계좌환류제, 공사연계연금제도(한국형리스터연금)\* 도입 등 연금세제 및 보조금 정책을 통해 연금수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

\* (가칭)연금환급세제는 면세자에게도 연금세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, (가칭)계좌환류제는 세액 공제로 인해 노후자산에서 누수되는 환급분을 연금계좌로 다시 납부되도록 하는 것이며, (가칭)공사연계연금제도(한국형리스터연금)는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세제혜택외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임

- 보험산업은 주기적으로 연금시장을 분석하고 정책건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(가칭)민간연금시장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, 다양한 상품 개발,\* 리스크관리 등 공급 측면의 혁신이 요구됨

\* 소비, 투자 성향 변화를 고려한 투자형 연금, 고연령거치연금(예, 톤틴연금), 유병자연금 등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, 연금저축/연금보험 상품을 저축성보험에서 분리하여 고령특화 상품으로 재구성

○ (주제발표 2) 한양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장 철 교수는 ‘연금보험상품 경쟁력 제고방안’라는 주제로 고령자 보장강화와 보험회사의 수익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

- (생존위험 공유) 보험회사는 계약자(피보험자)와 생존위험을 공유하여 노후 종신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수익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음
    - 생존위험 공유로 수익자의 연금급여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의 위험과 리스크마진을 낮춰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감소됨
    - 보험료의 하락은 상품경쟁력을 제고하게 되고 동일 보험료로 수익자(생존자)의 보장성을 강화시킬 수 있음
    - 생존위험은 (i)생존률의 기대치와 실현치에 따라 연금급여를 조정하거나 (ii)톤틴 (Tontine)과 같이 생존자그룹의 수익률을 확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유가 가능함
  - (연금의사결정 지원) 노후준비방안으로 30~40년의 납입기간(근로기간) 동안 종신 연금 구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
    - 미국 재무부는 2014년부터 401(k) 퇴직연금 TDF의 투자자산군에 거치연금 (Deferred Annuity)이 포함되도록 하여 종신연금의 기능을 강화함
    - Jang et al.(2022)\*에 따르면 거치연금을 포함한 TDF GlidePath 전략을 활용하면 연금소득이 기존 TDF 전략과 비교하여 20%가 향상됨(확실성등가기준)
- \* Jang, C., Clare, A., and Owadally, I.(2022), “Glide paths for a retirement plan when deferred annuities are available”, *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nance*, 21(4), pp. 565-581.
- (제도지원 및 세제혜택) 개인연금의 연금인출기 전략과 상품의 질적 제고를 위해 상품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종신연금 구매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이 필요함

첨부: 발표자료 각 1부. 끝..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